

아리셀 참사 경영책임자 2명 구속...밤새 기다리던 유족들, 얼싸안으며 환호와 눈물 "이제 시작"

조연주 기자 | 승인 2024.08.29 12:50

**박순관-박종언 구속, 중처법 위반 경영책임자 구속된 첫 사례
'구속 촉구' 2박3일 긴급행동 유족들, 소식들자 눈물터뜨려
대책위-가족협의회, "참사해결 첫걸음, 명명백백히 수사해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책임자 2명이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22년 1월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박순관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는 중처법, 산안법, 파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그의 아들이자 아리셀 경영총괄본부장인 박종원은 산안법, 파견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28일 오후 11시 40분경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다사는 이들 박씨 부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범죄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인력파견업체 메이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이들은 미숙련 파견노동자를 투입해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이들 책임자의 법원의 즉각적인 구속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서 2박 3일간 긴급행동에 돌입한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28일 오전부터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밤늦게 구속 소식을 전해들은 유족들과 대책위는 그제서야 서로 환호하고 얼싸안으며 일단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떠나보낸 뒤 웃음을 잃었던 이들에게 잠깐의 기쁨이 찾아왔다. 60일간 쉬지 않고 투쟁해온 이들이 처음으로 받아듣는 희소식에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며 "이제 시작이다, 다시 힘내서 가보자"고 다짐하는 말을 주고 받았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참사가 발생한 지 66일을 살아내는 동안 받아온 차별, 혐오, 배제의 말과 시선, 감정의 폭력에 무릎 꿇지 않고 버텨온 시간에 대한 아주 작은 보상"이라면서도 "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에 기뻐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뼈뼌어짐에, 다시 갈 길이 멀고 그 길의 끝에 닿기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유가족이 마주할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구속 결정 소식을 듣고 큰 울음을 터트린 모습을 함께 지켜봤으면 싶다. 얼싸안고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던 사심 없는 모습을 함께 지켜봤으면 싶다"고도 전했다.

더해 "이제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보강 수사과 조사를 통해 박순관과 그 일당의 범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해결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밝혀진 진상과 그에 부합하는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이 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역시 요원하다"고 했다.



아리셀 대책위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